

만남

2020년 9월
통권 188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순교자 성월에-----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4
교리	신앙 산책-----	7
기도하는 삶	-----	10
지혜로운 삶	-----	12
영적 상담	-----	14
나눔	-----	16
알림	-----	17
축일을 축하합니다	-----	18
전례	-----	19
공동체 소식,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9월 기도지향》

❖ 보편 지향 : 지구 자원의 보호

지구 자원을 약탈하지 않고 공정과 존중의 자세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순교자 성월에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진리 탐구에 의해 신앙을 받아들인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세기에 걸친 박해시대를 통해 약 1만여 명 이상의 순교자를 배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01년 신유박해와 1839년 기해박해, 그리고 1846년 병오박해와 1866년 병인박해’를 보통 ‘4대 박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모두 국왕의 명에 의해 전국적 규모로 발생했기에 수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후, 한국 교회는 순교 선조들의 희생 위에 견실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순교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시복·시성’을 추진하였습니다. 1차 기해박해와 병오박해 때 순교한 79위의 순교자들이 1925년 시복되었고, 이어 1968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24위의 순교자가 시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한국 천주교 전래 20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의 순교 복자 103위가 모두 시성되는 영광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123위의 순교자들이 복자가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순교 성인들은 전 세계 모든 신앙인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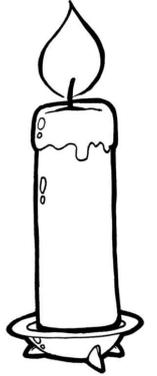
‘성월(聖月)’이란 일 년 중 어느 달을 예수 그리스도·성모 마리아·성인들께 봉헌하여 특별한 전구와 은혜를 청하며, 신자들이 모범을 따르도록 교회에서 제정한 달을 말합니다. 주로 축일과 연관을 짓습니다. 순교자 성월은 바로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 되신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을 기념하고, 본받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한국 순교성인 대축일(9월 20일)’을 그 중심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9월을 한국 순교복자 성월로 기념하다가, 1984년 103위의 복자가 시성됨으로써,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6월 28일 그 명칭을 한국 순교자 성월로 개명하였습니다. 순교자 성월 중 특별히, 순교 성인들의 모범과 순교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전구로 보다 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의 순교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증거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처럼 피의 순교를 당할 위험은 없어졌으나, 날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의 부재와 혼돈 속에서 땀으로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삶을 증거 해야 할 소명은 더욱 커졌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순교 정신과 투철한 신앙심을 자신의 삶의 거울로 삼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땀의 순교자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루카 9,23-26)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86장 “순교자의 믿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당신께서 가신 길을 두려움 없이 따르게 하소서.
- ❖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9 23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경험이 있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LOVE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길에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이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모두 버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스스로 자신을 버려야 당신을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려지는 자리에 오직 하나 남는 건,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그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어떤 다름도, 차별도, 갈라짐도 없습니다. 예수님 딱 그분 한 분 안에 모두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버려졌으나 예수님의 자리에서 새롭게 살아갈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모든 것은 버려지는 것이고, 버려지는 곳에 예수님의 자리만 남아 있고, 그 자리에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이 차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내 삶의 길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86장 “순교자의 믿음” 2절과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4. 고백하는 사람들

천주교 신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약 2,000년 전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나자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살았던 한 인물의 이름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 근처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밖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 예수님의 키와 몸무게는? 피부색은? 머리는 곱슬머리일까 아니면 생머리일까? 아무튼 예수님께서서는 척박한 땅 팔레스타인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한 실존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떨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무이며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고, 원래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합니다(참조: 가톨릭교회교리서, 436항). ‘기름부음 받는다는 것’, 이것은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에 의해 뽑힌 사람이 그 사명과 직무를 위해 축성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특히 예수님 시대 때 메시아는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구세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라는 젊은이를 이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나자렛의 예수를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단순히 예언자 중의 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구세주)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아직도 여전히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그 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관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구세주를 뜻하는 이 단어는 그 말을 고백하는 사람과 당사자 사이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구세주, 구원자가 아니라 엄밀하게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천주교 신자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와서 보아라!

그렇다면 약 2,000년 전의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어느 한 인물의 됴됨이와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그를 직접 보고, 더 나아가 함께 살아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 복음서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의문과 궁금함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요한 1,35 이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 본 후, 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묻습니다. “라삐(스승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짧고 간결하게,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분과 함께 묵었던 안드레아는 다음날, 형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니 고백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그리스도)를 만났소.”

2,000년이 지난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모습과 행동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은 금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갈 수 있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들을 되짚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오 복음,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 요한 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예수님에 관한 초기교회 공동체의 증언이 풍부히 담겨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책을 성실히 읽지 않고, 차분히 묵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바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예수님의 이러한 초대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복음서를 펼쳐봅시다.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행적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껴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 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나아가 예수님께서 고통 받는 이들,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살펴봅시다. 복음서를 읽어가는 여정에서 우리 역시 안드레아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6. 복음서를 읽게 되면

“와서 보아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복음서를 읽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생애와 인물 됴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는 시작부터 잘못된 접근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 전기라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 순으로 객관적으로 무미건조하게 기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복음서를 꼼꼼히 읽는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떠한 교육을 받으셨는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공생활(세례를 받으신 후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며 회개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삶. 마르 1,9~15; 가톨릭교회교리서 535항 참조) 전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며 사셨는가?

복음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나열한 전기라 아니라면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서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20,31). 복음서를 집필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집필되었다(70년 경)고 여겨지는 마르코복음서는 더욱 간결하고 분명하게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고서나 책의 제목처럼, 시작(1장 1절)부분에 복음서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따라서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일대기를 알고, 그 생애를 그려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도록 초대하고 있으며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초기교회 공동체를 통해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그 시대를 넘어, 세상 끝까지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명에서 복음서를 집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초기교회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내 삶에서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기쁜 소식(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나에게 믿음이란 어떤 의미인가?(김진호 프란치스코)

나는 언제인가부터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성호경을 그으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내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찾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것은 오늘의 삶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무사하기를 희망하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호경을 그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만 무사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하루를 살다가 보면 내가 생각하고 희망했던 것처럼 늘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짜증나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끔은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느님한테 실망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느님을 찾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특별한 고통 없이 평범하게 살아 올 수 있었던 것 모두가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이며 축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며,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내일의 삶에도 큰 탈 없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욕심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다. 그리고 보니 내가 하느님을 찾고 있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느님을 믿고 있노라고 자랑할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쑥스럽다 못해 부끄럽기까지 하다. 정말 누구인가가 나에게 너는 하느님을 믿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생각하다가 예.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기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하느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기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공기가 있다는 사실이다. 공기가 없다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잠시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느

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8월9일 주일미사 복음 말씀 중에 마태복음 14장 30~32절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 곧 나에게도 추궁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답을 만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 마디로 말해서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답을 만날 수 있도록 지혜의 은총을 허락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또한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보내시어 파스카의 음식을 차려 인간에게 성체와 성혈을 나누시는 놀라운 가르침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던 성체성사신비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성체성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곧 성령께서 제안에 함께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더 믿을 수밖에 없고 미사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성체와 성혈을 모실 수 있는 파스카의 신비를 깊이 느끼면서 진리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며 확고한 믿음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순간에도 나는 내가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완벽하지 않은 신앙(한민택 바오로 신부)

살다보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에서 겪게 되는 배신과 상처, 정신적 육체적 질병, 죽음의 위협과 공포 등 수많은 것이 삶을 위협합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외치기도 합니다. “주님, 왜?”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느님께서서는 나의 삶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때만 함께하는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신앙은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사는 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내가 더 잘 살 때, 삶을 잘 정리하고 나서, 그때 성당에 나가야지... 이러한 생각은 시련 속에서 자신을 고립시켜 결국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에게만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실존적인 물음, 곧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일로 생겨나는 삶의 물음을 안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과 상관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산, 우리보다 먼저 삶과 신앙의 길을 걸은 이들입니다. 성경은 비참한 삶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신랄하게 하느님과 신앙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치열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상적인 신앙의 표본을 제시하며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 존재의 명과 암, 나약함과 거짓됨까지도 깊이 통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과 함께 걸으며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신앙에서 그 답을 찾아갈 때, 성경의 이야기는 이미 끝나버린 옛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들 각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질문을 던지는 법,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한 사람, 한 신앙인으로서 가슴에 품고 살아온 여러 어려움과 고민거리와 문제를 풀어헤쳐 봅시다. 물론 그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이 한 순간에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답이 한 순간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돌더러 빵이 되라고 유혹하던 사탄이 만들어놓은 환상(마태 4,3 참조)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답은 서서히 밝혀집니다. 나의 내면의 변화와 함께 주어집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기도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지향

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기도 안에서 갈망이 정화되고 무르익으며, 나는 어느덧 삶의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음을 안고 항구하게 믿음을 청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느님과 씨름하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창세 32,23-33 참조). 신앙은 시련 속에서 가슴에 물음과 의문을 안고 살며 하느님과 하는 씨름입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궁리하고 찾으며 걸어 가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이 새어 새벽이 밝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과 씨름하면서 이미 어둡고 긴 터널의 끝자락에 온 것이며, 이전에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 필요한 것은 ‘단 한 걸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어쩌면 터널의 끝부분에 다다르기 위해 마지막 한 걸음만이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만 있다면, 이미 그 시련을 이겨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시련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시련은 반드시 끝나기 마련입니다.

시련의 다른 특징은, 이미 누군가 그것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은 사람, 이미 그 시련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시련을 넘어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은 사람의 손길에 나의 삶을 맡기며, 이제 주님께 믿음을 주는 법을, 주님과 함께 하는 나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는 법을 배웁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누군가의 손으로부터 전달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뒤를 따라오는, 나와 비슷한 시련을 겪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 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란 시련을 이겨내며 신앙을 전수받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이끌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물음 특히 불의로 인해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실존적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웃이 겪는 삶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며 함께 신앙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이 보여준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실존적 물음을 던지며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이들인가요?



두 가지 길 - 해주원 마리아 박사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의대생 시절 녀 달 내내 해부를 해 보아도 영혼이 어디 있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발로 걷는 우리 인간은 신기하게도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혀, 손끝, 발끝으로 여러 줄기 뻗어 있습니다. 뇌에서 내린 명령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며, 맛있는 요리를 하게 됩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되는 뇌를 구조와 모양에 따라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해마, 뇌간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복잡한 구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늘 한결같이 행동하지 않는지 왜 이유 없이 불안하고 때로는 신체적 욕구에 충실하는지 두 가지 길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빠른 길’입니다. 뇌의 아래쪽 부분인 편도(amygdale)를 통과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이 길은 우리 몸의 경보기입니다. 즉각적 감정이나 불안과 공포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 빠른 길은 우리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발달해 있습니다. 얼룩말이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가도 사자가 나타나면 갑자기 놀라서 도망가는 것은 이 빠른 길에 불이 켜져서 도망가라는 명령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위험해!”라고 외치고, 살아남기 위한 반응을 돕습니다.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순간적으로 귀를 만지거나 마구 달려오는 차를 보고 잼싸게 피하는 것은 이런 빠른 길 덕분입니다. 대신 약간 부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뱀을 보고 놀란 일이 있었다면 다음번에는 꼬불꼬불한 나뭇가지를 봐도 무작정 뱀인 줄 알고 화들짝 놀래어 도망칩니다. 일단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도망가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두 번째는 ‘느린 길’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 특히 발달한 전두엽 등, 실제 뇌에서도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 느린 길에 해당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입니다. 앞서 말한 빠른 길이 고속도로라면, 느린 길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과속방지턱이 있는 지방도로입니다. 훨씬 정확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정보를 거르기 위해서입니다. 느린 길은 속도가 느리지만, 지식과 공감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부분입니다.

이 빠른 길과 느린 길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빠른 길은 원시적이고 동물적이라 느린 길이 더 우아해 보이지만, 느린 길만 발달시켜야 한다거나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저 멀리서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하는 상황을 그려 봅시다. 차에 치이는 것이 위험한 이유와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끔찍한 여러 가능성,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한 다음 피한다면, 아마 때는 늦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재빨리 찾길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빠른 길에 불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느린 길로 가야 하는데 빠른 길을 택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비합리적 공포와 불안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전에 한번 놀란 적이 있는 자극에 대해서는 비슷한 자극만 보아도 의미 없이 빠른 길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랍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논리적 판단 없이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게 됩니다. 불이 났을 때 울려야 할 화재경보기가 요리만 해도 시끄럽게 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행기나 지하철을 탔을 때 공황발작이 생기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공황장애가 됩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당시에 무슨 구체적인 생각을 했냐고 하면(느린 길), 별다른 생각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쁘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빠른 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고 빠른 길로만 가게 됩니다.

요즘은 기능적 MRI 영상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볼 수 있는데, 기도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세계평화, 환경 등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에는 느린 길에 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한편, 기복신앙에 가까운 자신의 소원을 위주로 이야기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 빠른 길 부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응답이나 영성적 본질을 이런 뇌영상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과 대화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발로 걷습니다. 즉 누워있을 때를 제외하고, 걷거나 먹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뇌의 느린 길이 하늘에 더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처럼 생긴 우리 인간, 우리를 정말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독버섯이 되지 않는 법(이충무 바오로)

친한 친구가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단지 연구소 사보를 종종 보내 줍니다.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과학 분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알아가는 기쁨에 그 사보를 받아 볼 때마다 참 반갑습니다.

최근에 받아 본 사보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단지 1%의 성분 차이로 구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버섯은 “물 90%이상, 단백질 3%이하, 탄수화물 5%이하, 지방 1%, 미네랄 1%”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를 차지하고 있는 미네랄의 특성에 따라 버섯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 단순하게도 저는 독버섯은 거의 80% 이상이 독성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1% 성분 차이라니요? 믿기 어려운 과학적 진실이었지만, 독의 위험성을 이보다 분명하게 알려준 순간은 없었습니다.

버섯이야기를 읽다 보니 우리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때론 독버섯처럼 변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칼처럼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싸늘하기 그지없는 눈길로, 모욕감을 주는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때가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독버섯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과 고통을 주는 사람은 과연 몇 퍼센트의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악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미움으로 그 악함이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독버섯이 되는 데에도 그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1%의 편견이나 1%의 오만이면 충분합니다. 99%의 선함과 연민이 있다고 해도 그 1%가 나머지 99%를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99%가 돼도 충분하지 않지만, 미움은 단 1%만으로도 완벽하게 완성되는 불편한 진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보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진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그 1%의 변화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셨고, 지금도 그 1%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행사 준비

존경하고 사랑하는 본당 및 지방공동체 형제자매님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벌써 50년이란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1년도에 우리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사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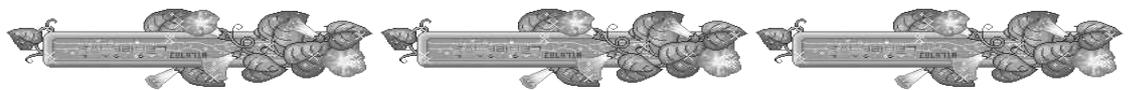
- 1) 기념미사(15시) : 날짜는 아직 미정,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 2) 사진전시회 및 식사 : 주교좌성당 대강당
- 3) 음악회 :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 4)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



* 행사 준비 담당 *

- 1) 기념 미사 : 주임신부님, 회장님, 전례분과.
- 2) 사진전시회 : 최장용(레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동훈(노엘), 박성아(베로니카)
- 3) 음악회 : 김성윤(마르코), 김한솔나(리드비나)
- 4) 50주년 기념 책자 발행 : 김진호(프란치스코), 전우연(아네스), 허채열(크리스티안), 정명옥(살로메)

* 협조 사항 *



상기와 같이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형자매님들께 도움을 청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로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1)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50주년 기념이 될 수 있는 사진들.
- 2) 개인들의 시, 수필, 신앙체험 등 그 외에 좋은 추억의 글들.
- 3)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자유기도를 전 신자분들께 청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성당 기도모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준비 위원장 허길조(안드레아) Tel. 5553441

❖ 9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베레나	김 윤 하	29일	가브리엘	최 서 로 박 준 영 남 재 민
3일	그레고리오	김 유 석 김 성 호		가브리엘라	박 연 심 이 현 후
8일	마리아	권 오 상		미카엘	최 희 로 박 지 현 황 영 선
17일	로베르토	강 일 남 이 도 선		미카엘라	김 혜 정 김 민 현 김 영 호
21일	요나	이 정 훈 박 요 나 안 태 웅		라파엘	이 종 하 박 지 우
			30일	소피아	심 재 은

❖ 9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세라피아	박경자(B)	21일	마태오	김명수(H)
6일	베아타	신의경(H)	26일	빈첸시오	추이슬(B)
12일	마리아	양봉자(B) 유복희(O)	29일	가브리엘라	신윤경(O)
20일	하상 바오로	정하상(O)		미카엘	이종열(B) 김일환(H) 정근욱(H)
				라파엘	임석순(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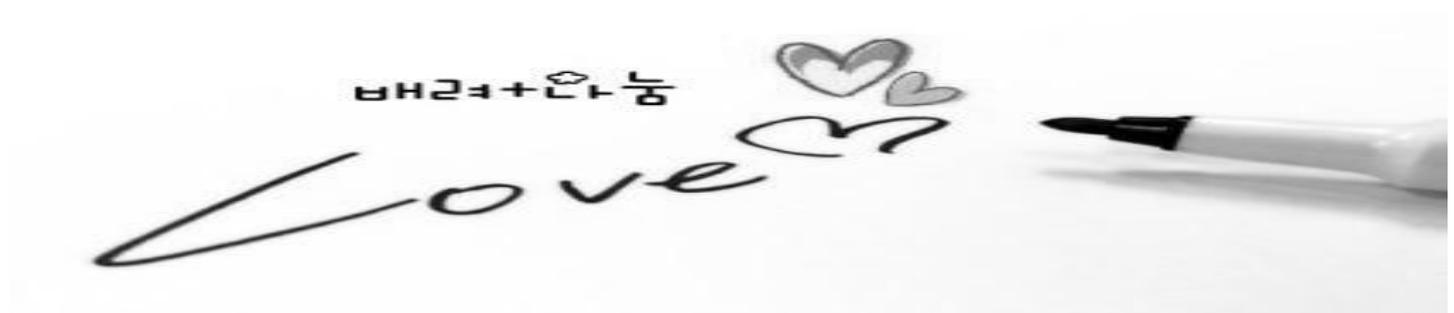


❖ 9월 성가번호 ❖

9월	입 당	봉 헌	성 체	과 견
6일	411	512	154	283
13일	337	221	159	286
20일	285	217	178	287
27일	29	510	151	47

❖ 9월 미사 전례 봉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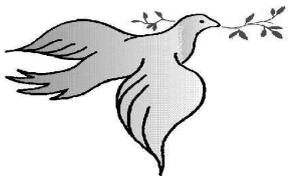
9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6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테레사)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남궁춘배(바르토로메오) 최장용(레오)	X
13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이영원(베드로) 김영옥(크리스티나)	주일학교	X
20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7일	정명옥(살로메) 한말조(마리안나)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X



❖ Hamburg 공동체 소식

1.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신앙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셨던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을 본받아 신앙 안에 항구하게 머무는 한 달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2. 9월에도 꾸리아, 연령회 등의 모임은 없으며 만남성당에서의 평일미사와 레지오, 그리고 예수 성심 성당에서의 주일미사만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 확산 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 9월에 계획된 Nacht der Kirche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해마다 음식 판매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올해에는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10월 4일로 연기되었던 예수 성심 성당과 주변 성당의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본당공동체 출범을 기념하는 날이 내년으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5. 9월에도 주일미사 후 커피 나눔은 없겠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미사를 9월에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 확산으로 인해 다시 한 달을 연기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한 기도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 협의회	매일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일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일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 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매일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일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일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9월(순교자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2	수			
3	목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4	금			
5	토			
6	일	연중 제23주일		
7	월	백로		
8	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9	수			
10	목			
11	금			
12	토			
13	일	연중 제24주일		
14	월	성 십자가 현양 축일		
15	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16	수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17	목			
18	금			
19	토			
20	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1	월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22	화	추분		
23	수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24	목			
25	금			
26	토			
27	일	연중 제26주일, 이민의 날		
28	월			
29	화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30	수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남 ❖

편집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